



오늘의 날씨와 생활

3월 11일 목요일 음 1월 28일 (5월)

기상정보

대체로 흐림



대체로 흐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8~10°C, 낮 최고기온은 17~18°C로 전망된다.

Table with weather forecast data for Jeju Island, including precipitation and wind speed.

Table with sunrise and sunset times for Jeju Island.

Table with daily weather forecast for Jeju Island.

Table with air quality and UV index information for Jeju Island.

월드뉴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얼굴 불상 인기

중국어 슬로건 내걸고 판매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인 누구든지 다 좋아' 반중국 정책으로 중국인들의 공분을 샀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중국에서 인기를 얻어 눈길을 끌고 있다.



중국에서 판매되는 트럼프 불상.

타오바오(淘寶) 등 중국 온라인쇼핑몰이 최근 '당신의 회사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트럼프 전 대통령 얼굴을 형상화한 불상을 만들어 판매에 나섰다.

'당신의 회사를 다시 멋지게 만들라'는 슬로건으로 바뀌 기업들에 상서로운 기운을 주는 불상으로 변모시켰다고 주장했다.

사색하는 표정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고개를 숙이고 양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참선하는 모습의 불상으로 온라인쇼핑몰에서 최대 3999위안(한화 70만원)에 팔리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얼굴의 불상은 이미 팔려나가기 시작했으며 대부분 신기하거나 재미 삼아 산 구매자들이 대부분이라는 게 판매상들의 전언이다.

한리일보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a book or publication.

목요일론



양상철

융합서예가·문화칼럼니스트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사람 간에 소통은 막히고 세상은 더욱 쓸쓸해졌다. 좋은 소식만 있으면 좋으련만 미디어는 온통 다툼과 부조리로 도배돼 일상이 황폐하다.

요즘 같은 시국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책과 가까이 하게 된다. 아니면 산이나 오름을 올라 힐링(healing)의 시간을 갖거나, 시원한 바닷가를 거닐며 답답한 기분을 해소하기도 한다.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를 바 없을 것이다. 현대사회는 강자나 힘의 논리로 성과를 독식하며 생존한다. 약과 불의가 늘 더 많은 기회와 이익

요즘 사는 세상에 노자(老子)를 보니

일상에 찌든 나 자신의 존재감과 삶의 가치를 확인시켜 준다. 노자의 '도덕경'을 책상머리에 두고 며칠을 보내다 바다로 나왔다. 경치 좋은 해안가에서 커피 한 잔 마시는 여유를 가져 보라. 누구든 생기를 되찾아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노자는 춘추시대의 사상가며 도가의 창시자다. '도덕경'에는 무위(無爲)의 다스림과 무위의 처세술을 담고 있다. 온통 혼란으로 고통을 겪고 있던 나라에 화합과 평안을 위한 삶 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를 바 없을 것이다. 현대사회는 강자나 힘의 논리로 성과를 독식하며 생존한다. 약과 불의가 늘 더 많은 기회와 이익

을 독점하고, 무한한 탐욕과 경쟁 심리는 소박한 인간성을 상실시킨다. 근대 서구사상은 자연을 지배와 정복의 대상으로 삼아 개발에 초점을 맞춰져 왔다. 지나친 문명의 발달로 귀중한 자연이 훼손되고 있다.

그래서 노자는 낮게 흐르는 물과 같이 겸손하고 다투지 말며 무위하라 고 한다. 자연과 인간의 '공생의 가치'를 찾기 위해 자연에 순응하라고 알려준다. 자연을 파괴하면 인간도 파괴되기 때문이다.

3월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양성 평등 사회의 실현을 다짐했다. 한편 대한민국 제1 도시 서울과 제2 도시 부산시장의 여성 성추행으로 4월 7일 보궐선거를 치르는 여초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선거 선심

공약으로 가락도 신공향이 되살아나고 신공향 건립을 보증하는 특별법까지 마련되고 있다. 축이 좋은 자들이 신공향 건설 예정지를 예측해 투기하고, 뒤질 새라 한국도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신도시 땅을 투기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노자 도덕경 77장에 "하늘의 도(道)는 활을 당기는 것과 같으니, 높은 것은 낮추고 낮은 것은 높인다.(종략) 반면에 사람의 도는 그렇지 않아서 부족한 자의 것을 덜어 넉넉한 자에게 바친다"고 했다. 노자는 강자를 비판하면서 어린이가 여성 서민 등 사회적 약자에게 각별한 애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노자도 요즘을 넉넉한 자의 찬란한 업적과 이어없는 속임수에 대해서는 할 말을 잃을 것이다.

열린마당

설문대할망전시관 개관을 준비하며



고범석

돌문화공원관리소 학예연구사

제주에는 설문대할망 신화가 있다. 현재 돌문화공원에서 가장 대표적 건축물로, 거대한 신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설문대할망 전시관이다.

세계적인 건축가 리카르도 레고레타는, 신화를 현대건축물로 디자인한 경우는 미국의 맨해튼에 세워진 자유의 여신상과 설문대할망전시관 밖에 없다고 했다. 자유의 여신상은 맨해튼 작은 섬에 세워진 높이 약 100m의 입상(立像)이고, 설문대할망전시관은 제주섬에 누워있는 길이가 약 500m나 되는 와상(臥像)이다.

지구의 초상(肖像)



강명균

제주도 환경자원순환센터팀장

있다. 자유의 여신상은 1886년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 프랑스가 미국에 기증한 평화의 상징이다. 설문대할망전시관은 바닷물에 발을 담그고 오름 사이에 편안하게 누워있는 평화를 상징한 '자연의 힐링'의 모습이다.

설문대할망전시관의 구성을 보면 도입부는 신화상징관으로 신화의 통로 태초에 할망이 있었다로 시작된다. 제1전시실인 민속관은 할망의 흔적과 살다로 이뤄져 있다. 제2전시실은 역사관은 탐라인의 역사를 펼쳐다로 구성된다. 제3전시실은 신화관은 여신에게 길을 묻다를 전시한다. 야외전시는 제주, 그녀를 만나다로 표현한다.

이 영화에서 물리학자는 주인공에게 말한다. "자네 딸 세대가 지구의 마지막 세대가 될 거야."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지구 현실이다. '술이 불타고 동식물이 멸종된다. 북극에서 얼음이 녹아 계곡과 마을을 덮인다. 해수면이 높아지고, 해수 온도가 상승해 태풍이 잦아진다. 지속적인 가뭄이나 폭염이 발생한다. 야생동물에서 인간으로 전이되는 바이러스가 발생한다.' 등 이 모든 것들은 '지구인 인간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경고'하고 있다. 지구에서 사라져간 동식물은 무수히 많다. 인간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경고다. 경고를 누적되면 퇴장이다.

Advertisement for Grand Hearing (그랜드보청기) featuring a doctor and promotional text.

Advertisement for WIDEX hearing aids, highlighting feature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a hearing aid store (국제보청기프라자) with a large discount offer.

Advertisement for Seogwi City Government (서귀포시정소식) listing various public notices and services.